

은퇴 검역탐지견 3마리, 새 가족 찾는 교감 여행

검역본부·트리니티항공·소노펫, 입양 희망 가족과 체험행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7~18일 강원도 홍천 소노펫 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은퇴 검역탐지견의 입양을 돕기 위한 교감 여행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새 가족을 찾는 푸리(7살)와 누리(9살), 델타(9살) 등 은퇴 검역탐지견 3마리와 사전 심사를 통과한 입양 희망 가족 3팀이 참여했다. 푸리와 누리는 잉글리시 스톱퍼링거 스파니엘, 델타는 비글이다.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을 입양한 가족 3팀도 참여해 입양과 가정 정착 과정에서 얻은 경험, 맞춤형 돌봄 방법 등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탐지견과 함께 하는 달리기·보물찾기·산책 등 교감 활동을 비롯해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 트레이너의 입양·훈련 교육, 입양 절차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민간 협력을 통해 은퇴 검역탐지견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복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입양 신청을 상시화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신청용 QR코드를 도입하는 등 입양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트리니티항공은 행사 기획과 진행을 맡았으며, 소노펫은 탐지견과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전문 교육을 지원했다. 최명철 검역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장은 “국경 최전선에서 검역 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탐지견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은퇴 검역탐지견의 복지 향상과 민간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퇴 검역탐지견 교감 여행 프로그램 사진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진청, 일반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천 지침 배포

축종별 사육환경·건강·행동 관리 요령 수록

농촌진흥청이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동물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축종별 사육·시설 관리와 가족 건강관리 방법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산란계·육계·돼지·한우·육우·젓소·오리·염소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적정 사육 공간과 시설, 건강 관리 방법 등을 담았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뿐 아니라 일반 농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축종별 관리 요령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란계와 육계는 급수시설의 누수 여부와 깔짚 상태를 점검하고, 젖거나 굳어진 깔짚을 제거한 뒤 마른 깔짚을 보충하도록 했다.

오리는 급수시설 주변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발바닥 상처와 보행 상태를 살피도록 안내했다. 한우·육우와 젓소는 급수조 청결 상태와 발굽·보행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젓소는 착유시설과 유방 건강도 관리하도록 했다. 돼지는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꼬리·귀 물기 등 이상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로프와 체인 등 환경풍부화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염소는 물통을 하루 한 차례 이상 세척하고 발굽의 비정상적인 마모와 염증, 절뚝거림 등을 관찰해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염소 운송 시 유의사항도 수록했다. 지침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성필남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장은 “동물 복지는 깨끗한 물 공급과 깔짚

관리, 정기적인 건강 점검 등 일상적인 농장 관리에서 시작한다”며 “이번 안내서가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축산 인증 전환에 다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일반농장 동물복지 실천 메뉴얼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271곳 추가...누적 851곳

하반기 모집 및 갱신 농장 11월 최종 인증 예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5일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를 마치고 총 271개 농장을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 마크를 통해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인증 대상은 한우(거세)·돼지·젓소 농장으로,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9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와 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을 완료했다. 하반기 신규 모집에 신청한 98개 농장과 2023년 최초 인증 이후 인증기간 3년이

만료되는 한우 농장 44곳에 대한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농장들은 지난 8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완화한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으며, 11월 말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박수진 원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 농장을 확대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소비자의 가치 있는 선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전ագ자
midal0210@naver.com



▲2026년도 3분기 경영분석회의 개최

농협사료, 3분기 경영분석회의 개최

4분기 목표 달성 및 사업 기반 마련 총력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는 지난 13일 강동구 소재 본사에서 임원 및 사무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3분기 경영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대외 경영 여건을 면밀히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해, 3분기 종합경영 실적 분

석 및 사업부문별 주요 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2026년 목표 달성과 2027년 사업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4분기 핵심 전략이 논의되었다. 특히 현장 중심 영업전략 구상과 초프리미엄 신제품(진심비육) 홍보 강화, 관행을 타파하는

전사적 마인드 혁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사 간 소통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끝으로, 최강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농협사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영업전략을 철저히 구상하고 임직원의 마인드를 새롭게 다지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보은옥천영동축협 대추축제 기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구희선)이 지난 16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보은대추축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19일, 20일, 23일은 충북농협(본부장 이용선) 상호금융지원단은 홍보인력과 증정용 사은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축제기간 첫 휴일인 17일~18일 사이 캠페인과 함께

농협상호금융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NH콕뱅크’를 홍보하며 내방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주말 보은을 찾은 고객, 행사를 준비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NH콕뱅크’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며 보다 쉽고 가까운 상호금융을 알렸다. 구희선 조합장은 “조합원, 지역주민과 함께 숨쉬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이달 25일까지 개최되는 보은대추축제 기간 각종 행사를 후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있다. 특히 지역 한우전문식당 한우이야기는 야외 주차장을 활용한 자율식당 운영하는데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축제기간 물가 상승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거래정보, 휴업일, 행사·축제 등
가락·강서시장 관련 각종 소식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농수산물 출하 가능 일정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카카오톡으로
가락시장 소식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채널을 추가해보세요!